동우

발행인 김재호 | **편집위원** 유근형(편집국) 임현석(DX본부) 장재웅(미래전략연구소)
이원탁(AD본부) 손수영(마케팅본부) 김승현(문화사업본부) 이홍규(경영지원국)
남형주(재경국) 최화정(편성전략본부) 채성일(스튜디오D) 구가인(보도본부)
정규현(전략기획본부) 강혜빈(콘텐츠사업본부) 박동엽(경영지원본부)
김도윤(동아E&D) 오혜정(채널A비앤씨) (편제순)
제작 경영총괄팀(구내 0822)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vol. 293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DAMG 계열사들의 시너지 플랫폼, 충정로 사옥	3면	채널A 홈페이지 새 단장… 제보 커뮤니티 〈취재가 시작되자〉 오픈	4면	뉴스비전-미디어텍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국내 언론사 첫 교육 전용 공간 '미러클 스튜디오' OPEN!

뉴스 제작 현장 구현한 최고 수준 시설에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교육 실시…공용 업무공간 〈THE 3〉도 리뉴얼 완료

미러클 스튜디오

①

②

③

④

ON AIR

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3층에 문을 연 미러클 스튜디오 모습. ② 미러클 스튜디오 내부 모습. ③ 4월 30일 열린 장강명 작가의 '1꼰 스토리텔링' 강의 모습. ④ 미러클 스튜디오 내 주요 장비 설명. ⑤ THE 3 인터뷰룸. ⑥ THE 3 카페테리아. ⑦ THE 3 공용 업무공간. 사진=편집국 사진부 이훈구.

공용 업무공간 'THE 3'

⑤

⑥

⑦

"제가 정말 앵커석에 앉아봐도 되나요?"

4월 29일 문을 연 동아미디어센터 3층 THE 3 미러클 스튜디오. 보도본부와 편집국 기자들은 카메라와 조명까지 하나하나 둘러보며 쉴 새 없이 스마트폰 촬영 버튼을 눌렀다. 뉴스 출연 경험이 아직 많지 않은 몇몇 기자들은 앵커 테이블에 번갈아 앉아보며 미러클 스튜디오에서 이뤄질 교육에 기대를 드러냈다.

'미러클 스튜디오'는 국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조성된 미디어, 콘텐츠 교육 전용 공간이다.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목표로 조성된 56.2m^2 면적 안에 뉴스 제작 현장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담아냈다.

DAMG 구성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공간 마련

미러클랩은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공간을 만들기 위해 스튜디오 설계 단계부터 공을 들였다. 외부 스튜디오와 교육장을 방문해 설비 현황을 조사하고 미디어텍, 뉴스비전의 방송 장비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얻어 조명과 음향, 방음·흡음 시설과 함께 콘텐츠 촬영 설비도 갖췄다.

앵커 테이블은 기자 2, 3명이 앉아 출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앵커석에 앉아 6mm 카메라 3대와 프롬프터를 바라보며 다양한 각도로 시선 처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카메라에 비친 모습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55인치 전자 칠판과 이동형 모니터도 설치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교육이 가능한 환경도 구축했다. 여기에 흰색, 녹색, 검정, 파랑색 초대형 크로마키를 내려 카메라 워킹을 연습해 볼 수도 있다. 미러클 스튜디오와 함께 신설된 코칭룸은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집중 교육과 인터뷰 촬영, 멘토링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미러클랩은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를 보완할 '소프트웨어'인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1등 콘텐츠를 만들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1꼰 스토리텔링' 강의, 기본에 충실한 콘텐츠 제작 기법을 가르칠 '코어 클래스', 적시에 찾아가는 '골든 타임' 교육 등이 미러클 스튜디오에서 이어진다.

스튜디오 개설 후 첫 강연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장강명 작가가 맡았다. 4월 30일 '1꼰 스토리텔링' 강의 연사로 초청된 장 작가는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긴 호흡의 논픽션 집필 노하우를 풀어냈다. 베스트셀러 작가의 첫 강의에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 30여 명이 늦은 시간까지 스튜디오를 가득 메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보도본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오디오 교육과 출연 교육도 시작됐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번 강의에서 기자들은 각각 5회, 3회에 걸쳐 발성법과 생방송 출연 준비 노하우 등을 익히게 된다. 실무 중심 강의가 개설되자 신청 공지 3시간여 만에 마감될 정도로 기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었다. 한정연 미러클랩 부장은 "스튜디오 조명과 카메라가 어색해 긴장했던 기자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이 '1등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 3'도 리뉴얼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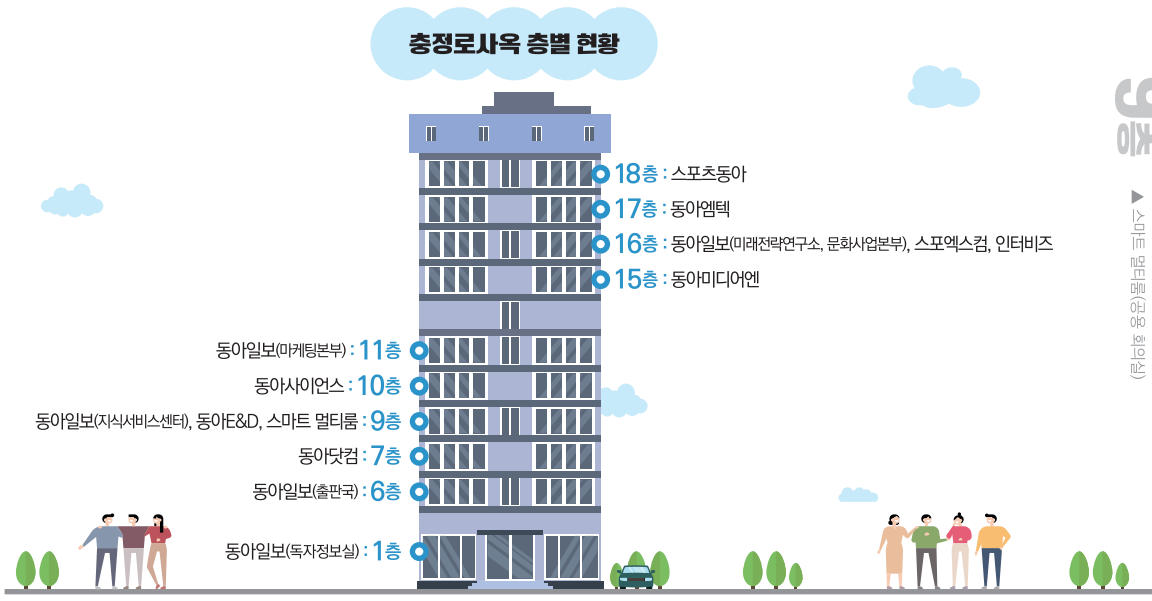
미러클 스튜디오 조성과 함께 〈THE 3〉도 리뉴얼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기자석, 집중취재실, 인터뷰룸, 회의실 등 기존 〈THE 3〉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카페테리아 위치를 변경해 청계천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공용 오피스 공간인 회의실과 인터뷰룸은 지니어스를 통한 예약제로 운영된다. 와이파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또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가벼운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커피머신, 음료, 스낵바 등도 새롭게 마련됐다.

미러클랩 이서현
경영지원본부 협력지원팀 이주현

DAMG 계열사들의 시너지 플랫폼, 충정로 사옥

올해 동아E&D, 동아사이언스 입주로 11개 계열사 집결…
9층 공용 회의실도 스마트 멀티룸으로 탈바꿈



18층 ▲스포츠동아 사무공간

9층 ▲스마트 멀티룸(공용 회의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동아일보 충정로사옥이 대대적인 공간 조정을 마치고 4월 29일부로 동아미디어그룹 계열사 입주 및 공용 시설 재단장을 완료했다. 이로써 동아미디어그룹 11개 계열사(동아일보, 동아닷컴, 동아엘텍, 동아사이언스, 동아미디어엔, 동아E&D, 스포츠동아, 스포엑스컴, 인터비즈, 동아비앤엠, 동아이지에듀)가 충정로에 집결하게 돼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의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충정로사옥에 새롭게 입주한 계열사는 동아E&D와 동아사이언스 두 곳이다. 1월 동아E&D가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충정로사옥 9층으로 이전했고, 동아사이언스도 서울시 용산구에서 충정로사옥 10층으로 이전해 4월 29일부터 100여 명의 사원들이 충정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충정로사옥 내 기존 계열사에 대해서도 공간 조정이 이뤄졌다. 동아일보 마케팅본부는 1월 15일부로 사옥 18층에서 11층으로 이전해 근무 중이다. 동아일보 독자정보실은 2월 24일 사옥 9층에서 1층 로비로 이전했다. 특히 독자정보실은 이전과 함께 '동아 커뮤니케이션 센터(DONG-A Communication Center)'로 이름을 바꾸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새롭게 단장했다. 사옥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기면서 접근성은 더 높아졌고, 독자와 사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동아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는 동아일보가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 기사, 사진 자료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고 최근 발간된 신문도 구입할 수 있다.

3월에는 스포츠동아가 사옥 10층에서 18층으로 이전했다. 스포츠동아는 사무실 이전과 함께 파란색을 포인트로 한 인테리어를 적용해 시원한 인상을 담아냈고, 사무실 중앙에는 인터뷰룸을 배치해 취재에 특화된 공간을 마련했다.

여기에 충정로사옥 공용 시설 역시 리모델링을 거쳐 더 쾌적한 근무 환경을 갖추게 됐다. 노후화된 1층 안내데스크는 화이트톤으로 새 단장하고, 조명을 설치해 밝은 로비 분위기를 연출했다. 1층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은 철거하고 아트월(Art Wall)이 새로 설치됐다. 하얀색 캔버스에 다양한 미술 작품이 전시돼 사옥 방문자들을 맞이한다.

공간 조정을 위해 임시 폐쇄됐던 9층 공용 회의실은 4월 22일 내부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멀티룸으로 재탄생했다. 40평 규모의 회의실 전면 벽에는 136인치(가로 3m, 세로 1.7m) LED 스마트 스크린을 설치해 시인성과 가독성을 높였다.

경영지원국 자산관리팀 정평강

DAMG 리더인 나를 디자인하다
2024 DAMG 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신규 부·팀장 대상 5월 9, 10일 양일간 진행

DX본부 전략팀 위은지 기자가 5월 9일 신임 부·팀장을 대상으로 '리버스 멘토링'을 진행하는 모습.

"팀원들의 동기부여를 돕는 방법이 있을까요?", "팀원들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부·팀장으로서 가진 고민과 궁금증을 묻는 질문 아래 공통적인 답변이 연이어 달렸다. 답변을 남긴 이들은 지난해 신규 임명된 동아일보, 채널A 부·팀장 29명.

5월 9~10일 양일간 개최된 2024 DAMG 리더십 아카데미는 이와 같은 신임 부·팀장의 고민을 해결하고, 변화주도형 리더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리더십 아카데미의 주제는 '리-디자인 프로젝트'로 정해졌다. '변화의 시대 속 DAMG의 리더십을 Re-Design하고 DAMG 리더로서 나의 성장 로드맵을 Lea(der)-Design 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4가지 모듈로 구성됐다.

'팀장이 알아야 할 HR 제도' 강의는 물론, ▲주니어 팀원에게 인사이트를 얻는 '리버스 멘토링' ▲DAMG 선배 리더들의 리더십 노하우를 듣는 '선배 멘토링' ▲전문 강사진과 핵심 리더십 역량 및 스킬을 학습하는 '리더십 변화관리 워크숍'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신임 리더들의 고민과 의견을 교육에 반영하고자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내용을 전체 과정에 녹여 대상자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업 적용도를 높였다. 매년 개최되는 DAMG 리더십 아카데미는 앞으로도 현장 리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DAMG 리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경영지원본부 인재문화팀 김선민

베테랑 기자에게 배우는 취재 A to Z

편집국 현장 프런트라인 강화 교육 5월부터 7차례 실시

편집국 현장 프런트라인 강화 교육 첫 강사를 맡은 정치부 김지현 차장(오른쪽)의 강의 모습.

"정치인이 사적인 자리에서 한 말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편집국 현장 프런트라인 강화 교육'이 시작된 5월 2일 동아미디어센터 19층 DD큐브. 30명이 넘는 기자 수강생들은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정치부 김지현 차장의 강연 말미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냈다. 김 차장은 평소 고민과 그간의 경험을 담아 진솔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식사 자리나 복도에서 걸으면서 한 대화 내용까지도 날짜별, 이름별로 정리해 수 년째 관리하고 있다"며 "이렇게 축적된 워딩들이 칼럼을 쓸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입사한 한 기자는 강연이 끝난 후 "평소 궁금했던 국회 출입 기자들의 삶과 취재 '팁'들이 흥미로웠다. 기회가 된다면 차후 정치부에 지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현장 프런트라인 강화 교육은 취재 최전선을 지키는 현장 기자들의 역량 강화와 베테랑 기자들의 노하우 전수를 위해 기획됐다. 해당 취재 분야에 관심을 가진 주니어 기자들이 참여해 희망 부서를 미리 경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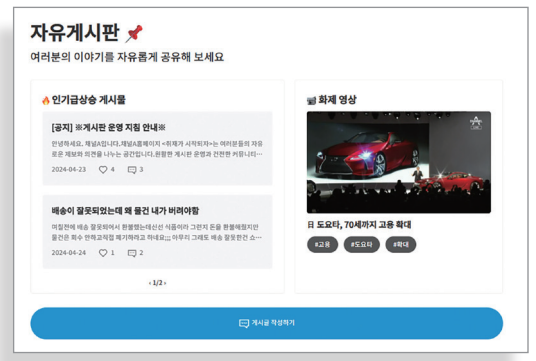
강사진은 편집국 베테랑 기자들로 꾸렸다. 9일 열린 두 번째 강의에선 산업1부 곽도영 기자(재계팀장)가 '기업 홍보팀을 넘어서는 비결'에 대해 강의했다. 곽 기자는 "기업을 취재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후배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 내용에 노하우들을 꾹꾹 눌러 담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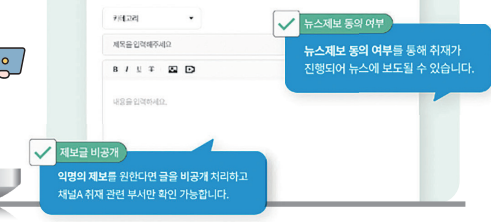
14일에는 사회부 조건희 차장의 사건 분야 강의가 이뤄졌다. 조동주 법조팀장(5월 23일, 법조), 문화부 김정은 차장(5월 30일, 문화), 스포츠부 이헌재 전문기자(6월 4일, 스포츠), 사진부 송은석 기자(6월 13일, 사진)의 강의도 진행된다.

편집국 뉴스룸기획팀 유근형

채널A 홈페이지 새 단장…
제보 커뮤니티 〈취재가 시작되자〉 오픈

게시글, 보도본부와 협업해 정식 취재로 이어져





채널A 홈페이지가 제보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 새 단장했다. 4월 24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취재가 시작되자〉 서비스가 전면에 등장한 것.

〈취재가 시작되자〉는 기존 비공개로 진행되던 언론사의 제보 기능을 커뮤니티 형태로 확장한 서비스이다. 어디에 얘기할지 몰라 망설였던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나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댓글을 달며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채널A 홈페이지가 기존 뉴스와 방송 영상을 시청하는 공간에서 나아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한 것이다.

〈취재가 시작되자〉는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팀에서 기획했다. 문제 제기에도 꿈쩍 않던 사람이나 기업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거나 보도 이후 내용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면 태도를 바꿔 바로 시정하는 현상을 비꼰 SNS 밈에서 착안했다. 언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모두를 지켜줄 수는 없지만, 모두가 지켜볼 수 있게' 만들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고자 했다. 그동안 채널A의 보도를 통해 변화된 '곰팡이 주택', '전세 사기 법안', '정당 현수막' 등을 직접 취재한 기자들의 인터뷰를 실어 보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커뮤니티의 역할 등에 대해 홍보하는 캠페인 영상도 함께 제작했다.

채널A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커뮤니티에 글을 쓸 수 있다. 제보자는 글을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뉴스에 제보할지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익명으로 제보 시 채널A 취재 부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나 영상 등 시각적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한 경우 뉴스 제보를 하는 대신, 댓글만 받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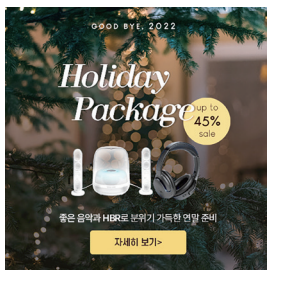
현재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글과 댓글이 업로드되고 있다. 게시된 글은 커뮤니티 절차를 통해 뉴스제보 체크박스에 동의시 보도본부에 전달되어 정식 취재로도 이어진다. 단순히 이야기만 하는 공간이 아닌, 취재가 뒷받침된다는 점이 기존 인터넷 커뮤니티와 다른 점이다. 내가 겪은 억울한 사연,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 여기저기 물어봤다면 이제는 〈취재가 시작되자〉에서 함께 해결해 보자.

경영전략실 X-스페이스팀 김상하

INSIGHT-DA

"HBR+스마트 가전=?!"… 매거진 구독 서비스의 진화

미래전략연구소-마케팅본부, 새로운 협업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 구독권과 가전제품 결합상품 기획 실무를 맡은 마케팅본부 MX팀 김정래 과장(왼쪽)과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 양민석 과장.

미래연과 마케팅본부의 협업 패키지

'구독경제'의 시대, 신문과 매거진의 구독 경쟁력을 높일 방안은 무엇일까.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이하 미래연)와 마케팅본부의 협업은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구독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가 경쟁 대상이 되면서 구독의 '원조'격인 신문과 매거진의 구독 서비스에도 변화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미래연이 발행하는 동아비즈니스리뷰(DBR)와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의 구독자 중에는 30~50대 직장인의 비중이 높다. 고품격 경제경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들로 장기 구독자도 많다. 미래연 사업전략팀 양민석 과장은 "콘텐츠는 좋은데 오래 본 만큼 우대해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장기 구독자들의 의견이 많았다"면서 "때마침 마케팅본부에서 전자제품을 공급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가전 제품 B2B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마케팅본부와 협업해 HBR 구독권과 전자제품을 묶은 결합상품을 기획한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2022년 6~8월 진행한 'HBR KOREAX삼성전자 썸머팩 프로모션'이다. HBR 6개월 또는 1년 구독권을 구입하면 노트북과 스마트워치에 대해 최대 35만 원의 결합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후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하반기에도 HBR과 전자제품을 연계한 프로모션이 진행됐다. 올해 1~3월에는 스마트 모니터와 블루투스 스피커를 결합한 '뉴이어 패키지'를 선보였다. 총 5차례의 프로모션 결과 판매 실적 7000만 원을 넘어서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자제품 중에는 특히 고급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

결합 패키지를 통해 장기 구독자에 대한 락인(Lock-in) 효과는 물론 전자제품 할인을 위해 HBR을 구독하는 신규 구독자 유입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연은 이벤트성 패키지 판매가 아니라 장기 구독자에게 상시 할인 구매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패키지 제품 판매로 미래연과 마케팅본부의 매출이 동시 성장한다는 점 외에도 내부 협업의 장점은 다양하다. 마케팅본부 MX팀 김정래 과장은 "기획 단계부터 판매, VOC(voice of customer) 처리에까지 외부 업체에 비해 업무 이해도도 높고 대응도 빠르다"고 밝혔다.

마케팅본부는 5월부터 동아일보와 DBR, 어린이과학동아, 일민미술관 IMA 멤버십, 밀리의 서재 구독권 등의 결합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신문 단독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상품 조합으로 독자 선택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취지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권오혁

동우

2024. 5. 17. 금

뉴스비전-미디어텍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4월 1일 임직원 모여 감사와 격려 나눠…10년 장기 근속자에 표창 수여

채널A 계열사인 뉴스비전과 미디어텍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뉴스비전과 미디어텍은 4월 1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1층 오픈 스튜디오와 4층 미디어텍 회의실에서 각각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뉴스비전은 채널A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 및 지원을 맡고 있는 PD, AD, FD, 영상취재기자, 영상편집기자, 보도문자 담당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일 오전 창립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뉴스비전 임직원 140여 명은 흰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오픈 스튜디오에 모였다. 보도본부의 박민혁 본부장, 임도현 천상철 김유영 부본부장, 동정민 정치부장 등도 참석해 뉴스비전 구성원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의 진행은 〈뉴스TOP10〉 진행자인 김종석 앵커가 맡았다.

강수진 뉴스비전 대표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채널A 뉴스비전은 채널A의 개국 초기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뉴스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 10년도 최고의 뉴스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함께 더 발전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55명의 10년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 수여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과 다과 시간을 가졌다.

같은 날 미디어텍도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미디어텍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임직원 모두에게 컵케이크와 10주년 기념 단체복을 맞춰 지급했다. 윤영섭 미디어텍 대표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당부했다. 윤 대표는 "지난 10년에서 안주하지 않고 전문적인 방송기술을 바탕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조해 나아가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미디어텍만이 해낼 수 있는 기술력과 강한 조직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텍은 채널A의 방송 프로그램에 필요한 조명, 음향, 영상 및 기술 관련 운영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방송 중계 및 스튜디오 카메라 등 현장 생방송 및 녹화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분야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변다영

▲ 4월 1일 동아미디어센터 1층 오픈 스튜디오에서 열린 뉴스비전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단체사진.

뉴스비전 10주년 기념 떡 케익을 자르고 있는 강수진 뉴스비전 대표(가운데) 등 참석자들. ▶

▲ 왼쪽부터 근속 10년 표창을 받은 미디어텍 기술관리팀 정종진 과장, 김도아 과장, 조창모 차장.

▲ 4월 1일 동아미디어센터 4층 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텍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단체사진.

제102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

5월 10일 경북 문경 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문혜경 선수(NH농협은행)가 경기를 치르고 있다.

단일 종목 대회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102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가 5월 3일부터 12일까지 경북 문경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대회에는 외국인 선수 112명이 참가해 지난해(21명)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 이번 대회에서 NH농협은행은 여자 단체전 정상에 오르며 이 대회 통산 40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서는 문경시청이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단식에는 배이수(이천시청)가 우승했고 여자 단식에서는 일본 국적의 하야시다 리코(순창군청)가 우승했다. 하야시다는 이번 대회 혼합복식과 여자 복식에 이어 3관왕에 올랐다.

제54회 동아무용콩쿠르

5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54회 동아무용콩쿠르 본선 및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꽃다발과 상패를 들고 웃고 있다.

제54회 동아무용콩쿠르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동아무용콩쿠르는 4월 1~5일 예선을 시작으로 5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본선을 치렀다. 올해는 이화여대 4학년인 김경빈 씨가 일반부 여자 한국무용 창작부문 금상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2학년인 김규년 씨가 일반부 남자 한국무용 창작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두 사람은 부채춤과 화관무를 창시한 김백봉 선생(1927~2023)을 기리기 위해 올해 동아무용콩쿠르에서 부상으로 신설된 김백봉상도 받았다.

DAMG 수상소식

스포츠동아 남장현 기자 등 3명, 체육기자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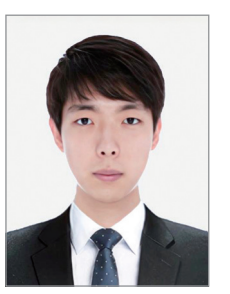
왼쪽부터 스포츠동아 편집국 스포츠부 백현기, 남장현, 권재민 기자.

한국체육기자연맹은 4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축구대표팀, 아시안컵 전지훈련서 카드 도박' 등 2건의 기사를 보도한 스포츠동아 편집국 스포츠부 남장현 차장과 권재민, 백현기 기자에게 2024년 1분기 체육기자상을 수여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기사였다"고 평가했다.

편집국 서경완 차장, 이달의 편집상 수상

편집국 편집부 서경완 차장(사진)이 4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분기 이달의 편집상 시상식에서 제270회 이달의 편집상을 수상했다. 한국편집기자협회는 제270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작으로 서 차장의 '이정후 데뷔전 안타…바람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분다'(문화·스포츠 부문) 등 5편을 선정했다.

편집국 박형기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수상



한국사진기자협회가 5월 8일 제254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스토리 부문 최우수상에 편집국 사진부 박형기 기자(오른쪽 사진)의 '나는 꼭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왼쪽 사진)를 선정했다. 박 기자는 2월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합동 영결식에서 마지막 경례를 하는 동료 소방관의 모습을 담았다.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김세중 / 채널A
편성전략본부

① 안녕하십니까 편성전략본부 C-PIPE팀에 입사한 김세중 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에너지 넘치는 편성전략본부에서 에너지를 마음껏 누리고 발산하여 열정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꼼꼼하게 업무 수행하여 C-PIPE팀의 목표를 이루고 채널A의 시청률 1위를 달성하겠습니다.
② 아직 아이는 없지만 육아에 관심이 정말 많다 보니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새끼]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보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 많은걸 배우고 다짐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더 나은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청자로서, 채널A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계속해서 시청할 것입니다.
③ ㈜대원방송

한정원 / 채널A
스튜디오D

①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한정원입니다. 채널A에 입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항상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채널A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저는 요즘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삶 속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새로운 운동을 배워보려 노력 중이며 그중 복싱 학원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서 / 채널A
전략기획본부

① 정부 및 지자체 사업 담당으로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브랜드, 채널A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② 마라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하프마라톤을 무리없이 안전하게 완주하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체력에 기반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MBN 미디어렙